

한국 양궁 5번째 메달...리커브 전 종목서 메달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김제덕(예천군청)이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한국은 출전한 리커브 전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은 12일 여자 개인전에서 대회 마지막 금메달을 노린다.

김제덕은 11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리커브 남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마테오 보르사니(이탈리아)를 7-3(29-29 30-29 28-27 28-30 29-28)으로 꺾고 시상대에 올랐다.

10일 남자 단체전에서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과 금메달을 합작했던 김제덕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이자, 메이저 대회 첫 개인전 메달이다.

김제덕은 지난 2024 파리올림픽에서 안산(광주는 행)과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고, 김우진·이우석

김제덕, 남자 개인전 銅...이탈리아 마테오 보르사니에 7-3
오늘 여자 개인전 금메달 도전...안산·임시현·강채영 출전

과 출전한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얻기도 하는 등 그동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9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모두 단체전에서 기록된 금메달이었다.

‘막내’ 김제덕의 어깨가 무거운 경기였다.

전날 ‘만형’ 김우진이 32강에서 조기 탈락했고, 몸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졌던 이우석도 이날 16강에서 패했다.

나홀로 자리를 지킨 김제덕은 준결승전에서 안드레스 테미노(스페인)에게 4-6(29-29 28-29 28-28 30-29 29-30)으로 졌지만, 동메달은 놓치지 않았다.

리커브 대표팀의 4번째 메달이다. 리커브 대표팀은 전날 혼성전 은메달에 이어 남자 단체전 금메달,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기록했다.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 나온 최용호(현대제철)의 동메달까지

더하면 한국은 안방에서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한편 김제덕을 4강에서 꺾은 테미노는 결승에서 숏오프 접전 끝에 마르쿠스 달메이다(브라질)를 6-5(28-27 28-30 29-25 28-29 28-28)로 제압하면서 2관왕이 됐다. 테미노는 전날 엘리야 카날레스와 호흡을 맞춘 혼성전에서 김우진-안산 조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었다.

이번 대회 마지막 금메달 주인공은 12일 가려진다. ‘광주의 신궁’ 안산과 함께 임시현(한국체대), 강채영(현대모비스)이 11일 진행된 여자 개인전 예선을 모두 통과해 16강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다.

안산이 오전 10시 2분 가장 먼저 8강행에 도전한다. 강채영은 오전 10시 38분, 임시현은 오전 10시 50분 16강 경기를 치른다.

여자 개인전 결승은 오후 3시 42분에 시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 개인전 시상식에서 김제덕이 동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일빌딩245 케이터링, 외국선수도 ‘만족’

양궁선수단에 점심 뷔페 제공
불고기·파스타·과일·케이크
다국적 행사 걸맞는 구성 호응
‘한나의키친’ 한정화 씨
“통역까지 준비해 꼼꼼히 준비”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 경기가 열리는 5·18민주광장 옆 전일빌딩245가 치열한 경쟁 속 선수단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됐다.

조직위원회는 전일빌딩245 8층에 결승 진출 선수단, 세계양궁연맹 관계자, 심판단을 대상으로 점심 케이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이 건강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을 통해 ‘광주’를 알리려는 방안이다. 선수들의 반응은 좋았다.

11일 케이터링을 찾은 각국의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점시에 뷔페식으로 차려진 음식을 담고 경기장이 내려다보이는 전일빌딩 창가에 앉아 식사를 즐겼다.

메뉴는 불고기·소시지 등 육류와 파스타·볶음밥 등 식사류부터 과일·케이크·오랑다 등 디저트까지 다국적 행사에 걸맞게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됐다.

케이터링 담당자 ‘한나의키친’ 한정화 씨는 “왔던 분들은 계속 다시 오신다. 오실 때마다 다른 분을 데리고 오셔서 갈수록 인원이 많아졌다. 그래서 오늘은 넉넉히 많이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또 “알레르기가 있거나 나라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성분은 통역까지 준비해서 꼼꼼하게 준비했다”며 “소나 돼지고기를 못 먹는 분들이 있어(육류류) 닭가슴살 위주로 준비했는데 다들 잘



11일 전일빌딩245 8층에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선수단을 위한 케이터링이 마련됐다. <한나의 키친 제공>

드셨다”고 웃었다.

식사를 마친 대만 팀 매니저 장신운은 “같은 아시아권이라 큰 걱정은 안 했지만 준비된 음식이 다양해서 좋았다”며 “다른 팀 선수와 스태프들도 만족스러워했다”라고 말했다.

리커브 남자 개인·단체전에 출전한 멕시코의 카를로스 로하스는 “한국 음식도 있고 모두가 좋

아할 국제적인 음식도 있어서 메뉴가 균형이 잘 맞았다”며 “그중에서도 치킨과 불고기가 가장 맛있었다”라고 했다.

한편 케이터링은 대회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운영된 후 장애인양궁선수권(22~28일) 기간 중 27~28일 이틀간 같은 장소에 다시 마련된다. /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gmail.com

메이저대회 첫 개인전 메달 김제덕 “다음 목표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즐거웠다”며 김제덕(예천군청)이 광주에서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첫 메달을 목에 건 소감을 밝혔다.

11일 광주시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제덕이 이탈리아의 마테오 보르사니를 7-3(29-29 30-29 28-27 28-30 29-28)으로 꺾고 3위에 올랐다.

이로써 김제덕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 동메달을 추가했다. 메이저 대회 첫 개인전 메달이기도 하다.

“너무 즐거웠다”라는 말로 입을 떼 김제덕은 “결과나 준비한 과정이나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동메달을 딴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자 대표팀의 개인전 메달 도전은 순탄치 못했다. 김우진(청주시청)이 32강전에서 일찌감치 탈락했고, 컨디션 난조를 겪은 이우석(코오롱)은 11일 오전 치러진 16강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막내’ 김제덕이 일본 가와타 유키와의 16강과 대만 탕치천과의 8강전을 모두 7-1로 승리하며 4강까지 내달렸다.

이후 스페인 안드레스 테미노 메디알에게 4-6으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선 2021년 양크턴과 2023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모두 8강에서 탈락했던 김제덕은 “8강에서

긴장을 많이 했다”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특유의 자신감으로 부담을 이겨냈다.

김제덕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못 부딪혀 보고 내가 먼저 수궁에 버리면 미련이 남을 것 같아 일단 부딪쳐 봤고 그 결과가 승리로 끝났다”라고 말했다.

자신감의 원천에는 팀과 팬의 응원이 있었다.

먼저 팀 동료 김우진과 이우석에 대해 “조언을 많이 해줬다”며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하면 좋겠다. 형들이 뒤에서 열심히 응원할게”라고 해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시합에 들어가면 관중들이나 지도자 선생님들, 또 형들이 응원하는 게 다 들린다. 그 힘이 자신감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제덕은 이제 아시안게임 대표팀 승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린다.

김제덕은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세계선수권이 끝이 아닌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향한 응원도 잊지 않았다.

김제덕은 “내일 금·은·동 다 딸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나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 출전한 안산(광주는 행)·임시현(한국체대)·강채영(현대모비스)은 모두 16강 진출에 성공, 12일 금메달에 도전한다. /특별취재팀·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gmail.com



KIA 타이거즈의 이준영이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 출전하며 5시즌 연속 5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다. KBO 리그 26번째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민을맨’ 이준영 꾸준한 활약

5시즌 연속 50경기 출전 ‘리그 26번째’

KIA 타이거즈의 좌완 이준영(사진)이 5시즌 연속 50경기에 출전한 KBO 26번째 주인공이 됐다.

이준영은 지난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선 6회초 제임스 네일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좌타자 김영웅을 7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50경기를 시작으로 2022년(75경기), 2023년(64경기), 2024년(56경기)에 이어 5시즌 연속 50경기 출전 기록도 달성했다. 리그 26번째 기록이다.

볼펜은 변화가 많은 자리다. 잦은 등판으로 부상 위험도 높은 만큼 오랜 시간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준영의 묵묵한 활약이 눈부시다.

이준영은 177cm로 투수로서 큰 키는 아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준영은 ‘슬라이더 장인’으로 통한다.

슬라이더 하나로 1군 무대에서 5시즌 연속 50경기를 이루고, 2024 한국시리즈 4경기에도 나와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다.

이준영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프지 않은 게 중요하다. 안 아프고 해왔다는 게 중요하다”며 “아프면 뭘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일단 그게 중요하다. 일단 버티야 한다”고 부상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올 시즌 부상으로 팀이 신음했던 만큼 건강은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마운드에서도 부상자가 나오면서 KIA는 기록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굳게 승리를 지켜줬던 볼펜도 시련의 시즌을 보냈다.

이준영은 “부담이 많이 됐다. 작년보다 부상자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투수들도 잘 던지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 앞으로 몇 경기 안 남았지만 똑같이 지금처럼 잘 버티고 한다면 5강에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끝까지 버티는 ‘5강 싸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준영도 ‘직구’를 더해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

는 각오다.

이준영은 “슬라이더가 조금씩 맞는 것 같아서 요즘 직구를 쓰고 있다. 다른 변화구들도 연습하고 있다”며 “(캠프 때 연습했던) 포크볼도 조금씩 던지기는 한다. (전)상현이한테 물어보면서 캐치볼 할 때 던져보고 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상황에서 던져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계속 연습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영과 전상현은 실과 바늘이다. 가장 친한 동료이기도 하고, 가장 오랜 시간 KIA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는 볼펜의 축이기도 하다.

이준영은 “구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경기 상황에 맞게 어떤 공을 던져야 하는지 야구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 같다. 서로 많이 알려주고 도움이 많이 된다. 요즘에는 많이 혼나고 있다. ‘직구 던져요’, ‘슬라이더 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웃었다.

50경기를 채운 이준영은 남은 시즌 부지런히 마운드에 올라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영은 “점수 안 주고 싶고, 막고 싶고, 이기고 싶고 다들 그런 마음이지만 쉽지는 않다”면서도 “안 아프고 중간 투수를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점수 안 주고 최대한 잘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